



1. 무제 | 101 x 139 cm | 솟, 한지 | 2016  
 2. 무제 | 104 x 74 cm | 솟, 한지 | 2015  
 3. 무제 | 101 x 139 cm | 솟, 안료, 한지 | 2016

## LEE JIN WOO 이진우

이진우의 작품은 여유를 갖고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멀리, 작품 속으로 들어가도록 바라보면, 그 속에 있는 확장된 공간의 침묵, 보다 더 광대한 시간의 침묵을 들을 수 있다. 화면 위를 옮겨다니던 눈은 그의 작품들에 드리워져 있는 듯한 장막을 관통하게 되고 시간과 재질의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된다...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이 작품들을 "풍경화"라고 명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명상의 풍경화, 다시 자연이 되어 초월성의 수단이 된 유기물(한지, 솟, 안료, 먹물)의 수 많은 지층으로 이루어진 풍경화이다. 작품은 본질적인 욕구에서 나온다. 즉 재료 속으로, 자연 속으로, <존재>속으로 용해되어 사라지고자 하는 작가의 욕망에서 나온다. 그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작가는 그것이 하나의 생활의 양식이 될 정도로 작업을 한다. 그의 노고는 명상의 한 형상이며 그 무엇인가가 나올 수 있도록 몰입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컨셉이나 프로그램과는 거리가 멀다. 이진우에게 있어서 작업을 한다는 것은 탐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단색화 화가들처럼, 이진우는 1980년대 프랑스 체재 초기에 한국 문화를 되찾고자 하는 욕구를 느꼈다. 그런데 그의 작품이 이 단색화 운동과 분명한 유사성들- 3차원성과 강한 물성, 수작업의 강조, 자연과의 관계-을 보인다면, 이진우는 단색화의 차세대에 속한다.

이진우는 1959년생으로, 한국, 중국, 유럽에서 정기적으로 전시를 하고 있다. 2015-2016년 파리 체르누치미술관 주최의 *서울-파리-서울*전에 전시된 이진우의 작품은 이 미술관에 소장되었다. 2016년 10월에는 조선일보미술관에서 개인전이 열린다. 이진우의 화집이 프랑스 악트 슈드 출판사에서 최근에 출간되었다. 이진우의 사인회가 2016년 10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KIAF2016에 참가한 마리아 룬트 부스(A홀, 부스 78호)에서 열릴 것이다.



4. 달빛이 있는 방 | 112 x 150 cm | 사진, C-프린트, 5 에디션 + 1 AP | 2010-2016  
 5. 벽 | 112 x 150 cm | 사진, C-프린트, 5 에디션 + 1 AP | 2010-2016  
 6. 무제 | 150 x 112 cm | 사진, C-프린트, 5 에디션+ 1 AP | 2010-2016

## HELENE SCHMITZ 헬렌 슈미츠

깨어지기 쉬우면서 동시에 난폭한 관계인,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헬렌 슈미츠 작품의 주요 요소를 이루고 있다. 사진은 헬렌 슈미츠에게 과학, 예술, 문학이 묘사하는 자연의 모습을 관찰하는데 도움이 된다. 서양의 전통에서 자연, 더 정확히 말해서 정원의 재현은 천국의 상징이다. 헬렌 슈미츠는 잔인하고 탐욕스러우며, 위협적이고 공격적으로 보일 수 있는 자연의 어두운 면에 관심을 가졌다. *파묻힌 정원들* 시리즈 작품들은 그 점을 훌륭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헬렌 슈미츠가 18세기 스웨덴의 한 자연주의자의 발자취를 따라 남미의 수리남 정글 여행을 하는 동안에 나오게 되었다. 시리즈 작품 전체는 잃어버린 그 무엇을 다루고 있다. 즉 인간이 존재했음을 환기시키는 드문 흔적들이 야생의 자연에 의해 지배당하고 흡수되어 버린 모습들이다. 헬렌 슈미츠가 탐구하는 것은 자연과 문화가 서로 포개져서 일치된, 이 황홀한 공간이다.

헬렌 슈미츠(1960년생)는 스웨덴 사진작가이고 스톡홀름에서 살며 작업을 하고 있다. 스톡홀름 대학에서 미술사와 영화사 학위를 받았다. 주로 스웨덴의 화랑들과 공공기관들에서 정기적으로 전시를 하며, 프랑스와 미국, 노르웨이에서도 전시를 한다. 작가의 작품은 여러 주요 공공기관에서 전시되었다. 외국에서는 파리 식물원, 프라하 국립미술관, 스톡홀름 국립 자연사 박물관, 동경 국립 과학 박물관에서 전시를 했고, 스웨덴에서는 아베시타 콘스트뮤지움(2013), 크리스티네함스 콘스트뮤지움(2012), 스톡홀름 현대미술관(2011)에서 전시를 했다. 2015년에는 스웨덴 헬싱보그의 던커스 컬쳐하우스에서 회고전 *국경지*전이 열렸다. 스톡홀름의 모던 아트 미술관, 국립 공공 미술 위원회(스웨덴), 스톡홀름 주의회의 문화부, 노르웨이의 오슬로 시립 미술관에 헬렌 슈미츠의 작품들이 소장되어 있다. 헬렌 슈미츠는 스웨덴 우체국의 우표제작(2015), 스톡홀름의 마리아 토겟 지하철의 사진 작품 들 전체(2013-2015), 카롤린스카병원의 주문작품(2010) 등, 공공 주문작품들도 제작했다. 헬렌 슈미츠는 사진집 출간 활동도 하고 있다. *시스템을 위한 열정*(2007)은 스웨덴 왕립도서관상과 스웨덴의 출판상을 수상했다. 2012년 *열대다우림의 그늘에서, 다니엘 롤란드와 수리남의 여행*은 스웨덴의 아우구스트상을 수상했다.



7. 성작 | 80 x 100 cm | 유화, 캔버스 | 2016

8. 홀 스테디 | 65 x 56 cm | 유화, 캔버스 | 2016

9. 무제 | 13,5 x 22,5 cm | 연필, 수채 물감, 종이 | 2013



## PETER MARTENSEN 피터 마텐센

교묘한 변경, 사실같지 않은 것, 비실재적인 것은 재료의 독특한 역량 개척과 동일한 위상에 있는 피터 마텐센의 작업 도구이다. 최근의 그의 *미완성의 스케치들*(마리아 룬트 갤러리, 2016)은 우리의 기록들과 꿈과 생각들을 담고 있는 노트들, 수첩들, 낱장의 종이들과 같은 새로운 주제에 도전한 것이었다. 그의 가장 최근작들은 신중을 요하는 시사문제들을 교묘한 방법으로 다루고 있다. 감정이입과 휴머니즘의 관념들, 전쟁과 이주를 반영함에 있어서의 정착과 소속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방향하는 존재들, 온갖 종류의 피난처와 집들- 의미를 알 수 없는 동작들에 골몰한 과학자들... 피터 마텐센은 명시되지 않은 날카로움이 있는 변경되고 애매모호한 강한 영상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작품들에는 가벼운 범칙의 흔적들이 있는데, 유머, 시적 감흥, 페이스스를 이용하여 뿌리박한 규범들과 시각들을 의문시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피터 마텐센(1953 년 덴마크 출신)은 그의 고국과 유럽, 미국의 화랑들과 공공기관들에서 정기적으로 전시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그의 작품들이 한국과 일본에서도 전시되었다. 2010년에는 덴마크의 젊은 여류미술사가, 메레트 산데르호프에 의해서 확인된 운동인 수난주의의 창립전, 검은색의 뉘앙스들전에 참가한 8 명의 북유럽 현대작가들 중의 한명이었고, 덴마크의 오르두루가드미술관과 베일미술관에서 전시를 했다. 그 이전 2006년에는 피터 마텐센의 회고전이 공공기관인 소피엔홀름과 베일 쿤스트뮤지움(덴마크)에서 개최되었다. 2014년에는 오덴사(덴마크)의 브란트미술관에서 1990년-2014년 시기의 회화작품들, 데생작품들, 비디오작품들로 구성된 개인전, *그리드에서 로맨스로*전이 개최되었다. 대중들의 평가를 점점 더 받게 된 피터 마텐센의 작품들은 스테이텐스뮤지움 포 쿤스트(코펜하겐), 빅토리아 앤드 알버트 미술관(런던), 쿤스탈 로스톡, 에이노 문화센터와 FRAC 오프-노르망디(프랑스)등 수많은 공공기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는 또한 공공 작품 주문과 사설 작품 주문도 요청받고 있다(초상화 작품들, 기념조각작품들과 회화작품들). 덴마크의 주요 정치가들의 공식 초상화들도 여러 점 제작했다. 2017년에는 생테티엔느 현대미술관(프랑스)과 덴마크관(파리)에서 개인전이 개최되며 덴마크의 국립역사박물관에서는 그의 현대 예술인들의 초상화 작품들이 전시된다. KIAF의 관람객들은 마리아 룬트 갤러리를 통해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에 KIAF에 출품되므로써 이미 피터 마텐센의 세계에 친숙해져 있을 것이다.



10. 스케치 | 36 x 35 x 3 cm | 유리, 구리, 강철 | 2014



11. 스케치 V | 51 x 30 x 5 cm | 유리, 구리, 강철 | 2016



12. 구조 II | 228 x 106 x 36 cm | 유리, 강철 | 2011

## PIPALUK LAKE 피파룩 레이크

피파룩 레이크의 작품들은 지속적으로 변형하는 마그마, 즉 알지못하면서도 친숙한 세계의 기원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그 작품들은 수 많은 연상들을 하게 한다. 즉 미와 추의 개념을 문제삼는 미학으로 야릇한 꽃들, 가상의 성장들을 연상하게 된다. 작가의 작품은 정교하게 다듬은 것과 다듬지 않은 것, 고귀한 재질들과 볼품없는 재질들을 같은 위상에 놓는다. 즉 열로 인해서 액체화된 유리와 구조화시키고 유도하면서 고정시키는 금속과의 가시적인 만남을 작가의 작품을 통하여 볼 수 있다. 감각과 감정의 체험대인 피파룩 레이크의 작업은 또한 지적인 질문을 하게 한다. 즉 작가의 작품들을 보면 그 작품제작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며 그 제작과정들은 재료자체에 의해 이야기된다. *집착을 버리는 것은* 작가의 작업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즉 그것은 제작과정에서 보이는 것을 따라 그 <도구>가 이끄는대로 할 수 있도록, 작가의 의도, 의지를 잊어버리는 순간이다. 작가는 알려진 것,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의 한계를 발견하고 초월하고자 추구한다.

피파룩 레이크(1962년생, 덴마크출신)는 유럽과 중국, 한국(KIAF 2015), 캐나다, 미국, 그리고 최근에는 호주에서 전시를 했다. 2011년에는 유리박물관 글라스뮤지트(덴마크)에서 작가의 최근작 전시(덴마크 예술재단 수상)를 개최했다. 2012년에는 공공기관인 소피엔홀름(덴마크)에서 *피파룩 레이크 1987-2012* 회고전이 개최되었다. 피파룩 레이크의 작품은 빅토리아 앤드 알버트 미술관(런던), 코닝의 유리박물관(뉴욕), 알터 호트 헤딩의 유리박물관(독일), 보스턴미술관, 덴마크 디자인박물관(코펜하겐), 덴마크 예술재단과 뉴 칼스버그재단 등 수 많은 공공기관에 소장되어 있다.

연락처 : GALERIE MARIA LUND 48 rue de Turenne - 75003 Paris  
ph. +33 (0) 1 42 76 00 33 HP +33 (0) 6 61 15 99 91 email galerie@marialund.com  
오픈 시간 : 화-토, 12시-오후 7시

[www.marialund.com](http://www.marialund.com) [facebook](https://www.facebook.com/marialund/) [www.instagram.com/galeriemarialund/](https://www.instagram.com/galeriemarialund/)

상세 정보는 마리아 룬트(Maria Lund), 시니 린-칸토(Sini Rinne-Kanto), 클레망스 루조(Clémence Rouzeaud)에게 문의 바랍니다